

베드로전서 1-2

Tape #C2630

By Chuck Smith

Tonight let's turn to First Peter chapter one. Of the many disciples that were following Jesus, He chose twelve to be apostles. One of the twelve that was chosen as an apostle was Simon Peter. Simon Peter was by profession a fisherman. He was called by the Lord from fishing for those Saint Peter's fish in the Sea of Galilee to become a fisher of men, and was a very impulsive person by nature, according to tradition, a very big man physically. He became one of the leaders in the church. 지금부터 베드로 전서 1장을 공부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12명의 선택된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능숙한 어부였던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성 베드로의) 고기를 낚기 위해 물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해오는 자료에 의하면, 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며 신체적으로는 체격이 꽤 큰 편에 속했습니다.

And now he is writing his first epistle introducing himself as,

첫번째 서신에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e strangers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 하고 시작합니다.,

throughout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1:1),

1절 후반 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라고 쓰여 있는데,

The word translated “scattered” there is the Greek word “disperse.”
‘흩어지다’ 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디스페르세’ 가 됩니다.

During the beginning of the early church, there arose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s the result of that persecution, many of the Christians were scattered abroad throughout the world. And it is to these Christians, who have been dispersed as the result of persecution, which is recorded in the book of Acts, that Peter is addressing this epistle, primarily to the Jewish believers scatter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in Jerusalem. But the epistle does also include Gentile believers as is noted in chapter two, verse ten. 초대 교회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 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언급된 그리스도인 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자들로, 그들 역시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도망쳐 온 자들입니다. 이 편지는, 우선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지만 베드로 전서 2장:10절에 언급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He calls them, 베드로는

Elect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1: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로써 편지를 시작합니다.

There is the doctrine of election; God having elected those who would be the heirs of salvation. The election of God is based upon His foreknowledge. You do not read of election apart from the foreknowledge of God. Now if you believe that God does know all things, you should have no problem with the doctrine of election. If you have a limited God that has only a limited knowledge, then you could have problems with the doctrine of election.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선택교리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그분의 예지에 기초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선택교리에 대해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유한한 지식의, 유한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마도 선택교리에 대해 많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Paul tells us in Ephesians 1 that “we were chosen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phesians 1:4). Here election is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에베소서 1장4절에 ;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1:4)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를 따라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Now let's put it this way. Does God know everything? We believe that He does. “Known unto Him are all things,” James said, “from the beginning” (Acts 15:18). If God knows all things, then God can't learn anything. It's impossible for Him to learn anything because He already knows it. If God is ever going to know anything, then He already knows it.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실까요? 우리는 그분이 그러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15:18절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그 분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겠지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써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어느것이든 알려고만 하시면, 그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You see, the problem that we have is living within this time continuum. We think of everything, and as Chuck Missler says, “in the linear”; but God is outside of our time dimension. And looking down from His vantage, He can see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at the same time. And so He knows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의 범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척 미즐러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시간의 1차원의 범주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적 차원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의 위치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는 시작도 보고 동시에 끝도 보는

분이심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So if God will ever know who is going to be saved, then He has always known who He is going to, who is going to be saved; that's God's foreknowledge. And as the result of that foreknowledge, knowing those that would respond to His love and to His grace through Jesus Christ, He has elected that they should be the children of God, and so the election according to foreknowledge. 만일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지 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겠지요. 그 결과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되, 그 예지력을 따라 택정하시는 것입니다.

And Peter in several places here does bring out this idea of called and elected, and all, and the foreknowledge of God involved with it. "Elect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이 하나님의 예지로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ithin our lives, that's ;

the Father, through (sanctification [or being set apart] by the Spirit, unto the obedience and the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1:2).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 말합니다.

So the work of the Trinity in our salvation is "Elect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set apart by the Spirit of God, and then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those he said,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1:2).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Charis, the typical Greek greeting, the grace; Shalom, the typical Jewish greeting, peace. Let them be multiplied. 특유의 그리스 인사말로 카리스는 은혜인데 그것은 전형적인 유대식 인사로는 살롬, 곧 평화를 뜻합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더욱 풍성할찌어다.

Blessed b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ich according to his abundant mercy hath begotten us again un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He begins his epistle with sort of a doxology. “Blessed be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egotten us again.” Now this idea is that of being born again, “begotten of God”, I’ve been born again, “to a living hope.” Hope is so essential. It’s just a part of man’s character and it’s the thing that keeps you going. A lot of times we just give up, except we hope that things are going to turn around. And so that hope is the thing that keeps a person going. I hope it’s going to change so I hold on.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송영의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의 중심 견해는 ‘거듭남’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로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성품의 한 부분으로써 소망은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포기해 버릴지라도 소망은 이 모든 것이 돌이켜지길 기대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는 변화를 소망하기에 또한 인내합니다.

The disciples had come to hope in Jesus Christ as the Messiah. When they saw the miracles that He did, when they heard His teaching, they became convinced that He was the Messiah. When Jesus said to the disciples there at Caesarea Philippi,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said, "You're the Messiah. You're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said,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but my Father" (Matthew 16:17). They had come to believe; they were convinc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but the cross changed things.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망하며 그 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을 때,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꿔 버렸습니다.

Now from the beginning they did not understand how that the Messiah could suffer and die.. They only took thos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that spoke about the Messiah reigning, and they were planning their place in the kingdom when He set up His kingdom and He began to reign as King. And they would even argue among themselves as who's going to be the greatest. I'm

going to be this, I'm going to be that. And of course, James and John's mother came and said, "Lord, I want a favor. When You establish Your kingdom, let my two sons sit on Your right hand." And they were looking forward to the immediate establishing of the kingdom of God.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고통과 죽음을 당할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통치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새로운 왕으로써 통치를 시작할 때, 그 왕국에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입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될거야. 나는 저런 자리에 있게 되겠지...'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지 논쟁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세워지길 고대했습니다.

And whenever Jesus would talk to them about His impending death, they would get upset. When Jesus started talking about it just after Peter said, "You're the Messiah", and He started talking about His death, Peter began to rebuke Him and said, "Lord, be that far from the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place of the cross in redemption until after the resurrection.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에 관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마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힐책하며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 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대속의 사건을 부활 이후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So during those three days when Jesus died, they died. Hope died. I mean, they were shattered. And when Jesus met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and they were walking down the path so disconsolate, Jesus said to

them, What's the problem, fellows? How come you look so sad? What happened?

예수님이 죽으신지 3일 동안 그들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소망을 잃고 각각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길을 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형제여,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They said, You must be a stranger around here if you don't know the things that have been going on lately in Jerusalem.

He said, What things? What you talking about?

How Jesus of Nazareth, a man of God, mighty in the word and in deed, who went about doing good, healing the sick, and we had hop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but they crucified Him. They killed Him.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Messiah.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deliverer. But they killed Him, it's all over. Hope is dead. 그들이 대답하길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것을 보니 당신은 정말로 이방인이 틀림 없군요.”라고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 지금 주고받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고 되물었습니다.

“온 세상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며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착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로 기대했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그들이 그를 죽였지요. 우린 정말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를 죽였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소망이 죽어 버렸어요.

And Jesus said, "O fools and slow of heart. Haven't you read the scriptures?" And He began from Moses and on through the Old Testament, began to expound the scriptures that referred to the suffering and the death of Messiah. And when they came to Emmaus, Jesus pretended like He was going to continue on and they said, Oh, no, no, it's too late; you come with us.

그러자 예수님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시며 모세부터 구약에 걸쳐 메시아의 고난 당할 것과 죽음에 관해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 길을 갈 것처럼 하시자 두 제자가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저희랑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And so as He broke bread, they recognized Him and He disappeared. And they said, Oh, didn't our hearts burn within us as He spoke the word to us on the road? We should have known. And they ran all the way back to Jerusalem, some nine miles, to share with these other disciples that Jesus is risen indeed. We had hoped; hope was dead.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저희에게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하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알리기 위해 약 9마일 쯤 되는 예루살렘까지 한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Now Peter is saying, “Thank God, blessed be God who has... we've been born again. The hope was dead but we've been born again, but now it's a living hope becaus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You see, the hope that we have tonight is a living hope and the basis of our hope in eternal life. The basis of our hope for the kingdom of God is the fact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That's the foundation of the hope that we have tonight.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며 영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소망의 토대입니다.

Had Jesus not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n there would be no Christian church. There'd be no basis for a Christian church. But His resurrection has made the hope more than just a hope, it's a living hope that we have tonight as the resul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But it's more than that. It's the hope of the inheritance that is ours as sons of God,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교회의 기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희망보다 더 큰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산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유업의 소망입니다.

Paul, in his prayer for the Ephesians, was “that they might know what was the hope of their calling” (Ephesians 1:18). Do you know what is the hope that God has for you in the future? Do you know of the inheritance that God has for you? The plans that God has for your eternal future? Do you know the glories of dwelling with Him in His kingdom forever? Paul prayed, "Oh, that you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your calling." It's a living hope,

Of an inheritance that is incorruptible, and undefiled, and fades not away, and it's reserved in heaven for you (1:4),

에베소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가지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며 예비하신 유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영광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요? 바울은 “여러분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1:4)

Now interestingly enough, the Bible always balances the teaching of the sovereignty of God with the responsibility of man and the Bible teaches both truths. We cannot always reconcile them in our minds as we try to follow steps of logic and carry it out to a logical end. Somewhere it breaks down and we lose it. But the Bible does teach both, that God is sovereign, but it also teaches that there is that part of man's responsibility. Man must respond to God. So there is that human responsibility that counterbalances the sovereignty of God.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 가르치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의 절차를 따라 그 마지막까지 잘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균형을 이루게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선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의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Here Peter is telling us of the sovereignty of God. You have been elected according to God's foreknowledge. Set apart by the Holy Spirit, cleansed from your sin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have been begotten by God, un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here is an inheritance waiting for you. It's incorruptible, it's undefiled, it fades not away; it's reserved. Got your name on it.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구별되었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산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는 유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며,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것으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천국)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Now in this, all up unto this point is what God has done in God's sovereignty. It's all God's work. You don't have a thing to do with this yet. It is all the work of God up to this point. So now he gets to your part.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인간의 책임(몫)의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Your part of the whole thing,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몫에 관하여,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1:5)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part? Just believing. You know, God's done all the work. He didn't leave anything as important as the work to someone as weak as you. You'd mess it up. So God did all the work and all that is left for you to do is to believe the work of God. 무엇이 여러분의 몫입니까? 단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의 어떤 것도 떠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They said to Jesus one day,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of God?" And Jesus said, "This is the work of God, just believe on him who he has sent" (John 6:28,29). And so God has done the work; God's part, all of this was God's part. Then He finally gets to your part: through faith, just believing and trusting that work of God. 사람들이 하루는 예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대답 하셨습니다.(요6:28,29)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지는 것을 그저 믿고 신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

Wherein ye greatly rejoice (1:6),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I rejoice in that work of God in my behalf. I rejoice in the inheritance that I have. I rejoice in that hope of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the living hope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And I rejoice in it. I greatly rejoice.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나는 내가 소유하게 된 유업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기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산 소망을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 안에서 기뻐하되 크게 기뻐합니다.

though now for a season, [Paul said] if need be, you are in heaviness because of the manifold trials (1: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Christianity and Jews, they had two strikes against them. The Jews had rebelled against the Roman authority. Within six years of Peter's writing this epistle, they were to begin another rebellion, which was to bring really the were to rebel when they were utterly destroyed during the reign of Hadrian, Barcoba (**bar Kokhba**) holding out in that little village of Bara(**parah**) which was much like the story of Masada, but it's -- there were no survivors or no Josephus Flavius to record it and so we know so little about it.

기독교도와 유대인, 그들은 그들을 저항하는 두 번의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대하여 반역을 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6년의 기간 안에도, 그들은 또 다른 반역을 꾸며, 그 결과로 타이투스의 포위 공격하에 예루살렘이 거의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헤드리안이 통치하는 기간동안에 그들은 또 한번 반역을 일으켰는데, 마사다 사건과 유사하게도, 바라마을에서 바르 코크바가 진압됨으로써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사다 사건 때는,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플라비우스 조셉푸스 역시 이것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들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But the Jews did experience, even in those days, persecution because they were a Jew. Secondly, they received persecution because they were Christians. The Jewish Christians: double jeopardy. And so they had persecution where they went. And Peter speaks about your rejoicing greatly in the future, though at the present, you're going through some pretty heavy trials.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이중 위험에 노출 되어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있을 놀라운 기쁨에 관하여 말하면서 현재를 지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써 얼마간의 무서운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But know this,; the trial of your faith [is actually] 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when it is tried in the fire,] that perisheth, though it be tried with fire; [that your faith] might be found unto praise and honour and glory at the appearing of Jesus Christ (1:7):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se were all purifying experiences that you were going through and God so often uses trials as purging or purifying instruments in our lives. As a fire to burn out the dross, God puts us through the trials in order that we might be refined and purified. “The trial of your faith is really more valuable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your faith be tried with fire, the purpose of God is that it might be found unto the praise and honor and glory at the revelation here [apocalypses] of Jesus Christ.”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지나야 할 경험들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자주 이 시험들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로 순결하고 정화된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불이 불순물을 태어 없애는 것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 가운데 지나도록 허락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Whom having not seen, ye love; in whom, though now ye see him not, yet believing, ye rejoice with a joy that’s indescribable and full of glory (1: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So we are in much the same condition as these to whom Peter was writing. We've not seen Jesus but yet we love Him. "Whom having not seen, I still love Him". And I rejoice in this hope, in this inheritance, in this eternal life in salvation, with a joy that is indescribable. I cannot describe to you the joy that is in my heart. I don't have words. I don't have the vocabulary that can describe the ecstasy that is mine as a child of God. It's a joy indescribable; it's just full of glory.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분을 사랑합니다. 또한 나는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유업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구원의 영생을 즐거워합니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 내 맘에 있는 이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말로는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흥분을 표현할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것은 영광의 충만입니다.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even the salvation of your souls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That's where my faith is going to ultimate, in the salvation. So faith is tried. My life is taken through these fiery trials that my faith might appear when Christ is reveale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and receiving salvation of our souls. 나의 믿음이 나아갈 최후의 정착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계시의 때에, 또 구원 받은 우리 영혼을 받으실 그때, 나의 인생은 불의 시련을 통과함으로 내 안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Of which salvation the prophets inquired and searched diligently, who prophesied of the grace that should come unto you:

Searching what, or what manner of time the Spirit of Christ which was in them did signify, when He testified beforehand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glory that should follow (1:10-11).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10,11)

Now he is saying here that the prophets didn't really understand all of the things that they wrote. We remember when Daniel was seeking understanding of some of the things that he was writing about; the Lord just said, Daniel, just seal it up. It's not for now. It's for the future. And in the last days, knowledge will be increased. They'll understand it then. So you just seal it up. It's not given unto you to know at this particular point. 베드로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받아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이 기록하였던 말씀에 대해 “인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미래를 위한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지식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때에야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저 봉함해 놓으십시오. 이 말씀들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 psalm, and I forget just which one it is now but it says, Psalm 22, “These things are written” [is it?] “for a generation that shall come.” In other words, I'm writing things I really don't know about and as I try to understand them, all I know is that I'm writing these things for a generation that is to come.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I fully understand. And so -- it's not in

twenty-two, I forget where it was, but there's a psalm there. You search it out. Thirty-one. All right, very good. Which verse? 22:31. Oh, I was right in twenty-two. Okay, yes, all right. Got you now.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것을 쓰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쓸 뿐, 아는 바가 없으며, 내가 아는 바 모든 것을 내가 쓰고 있음은 이제 오게 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중략)

“They shall come, and shall declare his righteousness unto a people that shall be born, that he hath done this.” In other words, you know, it will come to pass later on. (중복됨으로 생략)

And 30, “A seed shall serve him; it shall be accounted the Lord for generation. They shall come, and shall declare his righteousness unto the people it shall be born” (Psalm 22:30-31). 또 시편 22편 30절과 31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writing for the future, they really were curious. Now I can imagine the problem that Isaiah had when he wrote of the Messiah. For in chapter nine, he said,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And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in righteousness and in judgment from henceforth even forever. Fo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 (Isaiah 9:6,7). And he's writing of the Messiah and you know He's going to reign on the throne of David, this whole thing. 미래에 대해 기록된 글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가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을 때 그가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 상상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6,7)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쓰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And then in Isaiah 53, he talks about Him being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in his death.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upon him;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For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ve turned every one of us to our own ways; and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He was smitten, stricken, and we esteemed him not” (Isaiah 53:3-7,12). And so he writes these things that seem to be totally incongruent, going to be put to death, and yet he’s going to reign forever on the throne of David. 또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범죄자 중의 하나로 취급 받게 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사53:3-7,12) 이사야는 메시아가 죽음에 내어질 것을 기록하면서 또한 그가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체적으로 불일치해 보이는 내용들을 기록하였습니다.

Now Isaiah being inspired by the Holy Spirit had to write what the Holy Spirit said. Imagine Isaiah thought to himself, What in the world am I writing here? This doesn't make sense. How can He reign forever on the throne of David and yet be put to death? 이사야는 성령의 영감(계시)을 받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이것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 혼자 들은 생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는 거지? 이건 말도 안돼.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수 있지?”

And so the prophets writing of this grace that should come to you, they were searching in their own minds and hearts what manner of time the Spirit of Christ was referring to that was in them, when He testified beforehand of the sufferings of Christ. They themselves did not understand their prophecies concerning the sufferings of the Messiah.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던 선지자들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쯤 계시될 것인지, 언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알기를 갈망했지만, 정작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하는 본인들 스스로는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And in that Psalm 22 that we referred to earlier,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why art thou so far from the cry of the my roaring? I cry in the daytime, and thou hearest not; in the night seasons, and am not silent. But thou art holy, O thou that inhabitest the praises of thy people Israel” (Psalm 22:1-3). 앞서 언급했던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 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기록 하시니이다” (시22:1-3)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And then he goes on to describe death by crucifixion, wondering, what am I writing about? The Messiah, and yet I am talking about Him being pierced, piercing his hands and his feet. And so they themselves wondered, when they wrote of the suffering of the Messiah, they couldn't put it together in their mind. But “the glory that should follow”; He was going to be put to death, He was going to suffer and yet, He was going to enter into the eternal glory, “the glory that would follow.” 당시에 저자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수난에 의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메시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통에 대해 직접 기록하지만 스스로 의아해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그 분은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So they did not understand these things. They searched diligently. They sought to know them and understand them but they were not written for them at that time, but written that later on, after the events had transpired, people then would understand the plan of God in redemption. And see the necessity of the death of Jesus Christ, in order that we might be redeemed, in order that we

might be called of God a holy nation, a royal priesthood, that we should bring forth fruit unto His grace through Jesus Christ. 어쨌든,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있던 그들 자신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었고, 장차 미래에 발생할 일에 관한 것으로, 구속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이해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이란,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So unto whom it was revealed, that not unto themselves, but unto us they did minister the things, which are now reported among you by them which have preached the gospel unto you with the Holy Ghost sent down from heaven; which things the angels desire to look into (1: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So here's the thing that God just sort of kept secret; His plan of grace and redemption through Jesus Christ. Even the angels desired to look into these things that were being minister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apostles. 은혜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야말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성령을 힘입어 행한 사도들의 사역들을 주의 깊게 살피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Wherefore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1: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Now the idea of girding up your loins, it's a phrase that it has a cultural kind of a thing to i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n our culture. But in those days, the men wore these long robes down to their feet. Now when you

want to run or when you really want to go to work, it is cumbersome to have a robe down to your ankles; hard to run in something like that. 이 표현은 전투를 위해 칼이나 갑옷 등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분히 문화적인 내용의 구절입니다. 사실 당시의 관습에 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당시 남자들은 발목까지 끌리는 긴 겹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가야 할 때나 혹은 일을 하러 갈 때, 이런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So if you're going to run, or if you're going to get out and really do some work, what they would do is pull the skirt up and they would tie it around the waist. So then it's a short skirt and with that you can run or you can work. So it means, you know, get busy, go to work on this. Go to work in your mind on these things.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만일 여러분이 급히 달려가야 한다거나 혹은 뛰어 나가거나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긴 옷자락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허리춤 어딘가에 질끈 동여 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짧아져서 뛰거나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부지런히 행하되 옷을 여미는 것같이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So "gird up your minds, be sober, this grace that is brought unto you and shall be brought when Jesus again reveals Himself, the revelation, the coming of Jesus Christ."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찌어다 (반복됨)

As obedient children,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 in your ignorance (1: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Not living as you used to live when you were ignorant of the truth of God. Not living as you used to live before you were born again by the work of God's Holy Spirit within your life.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던 습관대로 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좇아 살면 안됩니다.

You see, the natural man is body, mind and spirit. The mind being ruled over by the body and the body appetites. The born-again man is a spiritual man. He's born by the Spirit. And born again means that you are now living a spirit-mind-body existence. Prior to being born again, you lived a body-mind-spirit. Body-mind-spirit; mind controlled by the body and the body appetites. Being born again you now live a spirit-mind-body existence. The body doesn't rule anymore. You're not ruled by the lust of your flesh. You found that life is more than just eating and drinking. 육적인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 혼은 육신과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그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육과, 혼과, 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혼은 육체와 육체의 소욕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은 육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But now ruled by the Spirit, you now have the mind of the Spirit and your mind now is on things of the Spirit. They that are of the Spirit do mind the things of the Spirit. They that are of the flesh d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of the Spirit is life and joy and peace. 하지만 영으로 다스려 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에 이제 성령의 것들이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비롯된

것들은 성령의 생각에 복종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육의 생각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So Peter here is saying, As obedient children, don't fashion your life after the former life, which was lived after the lust of your flesh, governed over by your flesh; your mind and life governed by your fleshly desires.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라” 고 말합니다

And as you look around at the world today, the world apart from Christ is a world that is governed by the desires of their flesh. That's what a person lives for, to fulfill their fleshly need. That's what the world talks about. 오늘날 이 세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세상이 육체의 소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But as he which hath called you is holy, so be ye holy in all your manner of living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So we've been called to live a separated life. A life of holiness, a life of purity, not living after our flesh or the desires of our flesh, but living after the Spirit.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함 삶, 순결한 삶, 육신의 소욕을 좇아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으로 말입니다.

Because it is written, Be ye holy; for I am holy (1: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찌어다”

God's declaration when He gave the law unto the people.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And if you call on the Father, who without respect of persons judges according to every man's work, pass the time of your sojourning here in fear (1: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That is, in reverence of God.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For as much as ye know that ye were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as silver and gold, from that empty former life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Again, as obedient children,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 in your ignorance: no longer ignorant of the things of God and the things of the Spirit. So we no longer live that empty life after the flesh, but now the rich life after the Spirit. We've been redeemed, set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set free from the slavery to our flesh. “Not with corruptible things, as silver and gold.” 베드로는 다시 권면하기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더 이상 하나님과 성령의 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공허한 삶을 살지 않으며 성령을 따라 부요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이미 구속함을 받았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육신의 종 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Silver and gold have only temporal value. There's no eternal value to them at all, only temporal value. When you're talking about a man's soul, you'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eternal. You cannot purchase something that is eternal with things of temporal value. You cannot buy salvation; you cannot earn salvation. You do not deserve salvation. It is a gift of God and is a work of grace. It is something that you receive, the work which God has done. So we've been redeemed, not with corruptible things like silver and gold from that empty life that we used to live. 은이나 금은 단지 일시적인 가치를 지닐 뿐, 영원한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영혼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영원히 있을 그 무엇에 관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얻어 낼 수도 없습니다. 또 구원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니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여러분은 그저 받기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속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살아온 공허한 삶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that we received by tradition from our fathers (1:18).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And of course, writing to the Jews, he's writing about all of the traditional things that the Jew is, even to the present day, caught up in. And, I mean, they have a lot of tradition. Now we do, too. I mean, we've got just a lot of traditional things that are deeply ingrained in our culture that it would be better -- we would be better off if we could get rid of them. This tradition of celebration of Christmas; it's only traditional. Oh, Scrooge. Do away with Christmas; how could you? But you see how we sort of recoil at the thought of not celebrating Christmas because it's so deeply a part of our traditions.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으로 베드로는 그들의 전통, 오늘날에 와서 조차 몰두하고 있는 그 전통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문화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전통이 문화를 더 발전하게 하기도 하지만 만일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보다 나아 질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 사실은 이것도 그저 전통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냥 무시하라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깊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절기를 꼭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But you see, the church only put a Christian name on a pagan holiday, so that the Christians could join in the celebration of the pagan holiday and make it legitimate for Christians to join in. Christians didn't want to feel left out of this pagan celebration of Saturnalia, the passing of the winter solstice. And so they put a Christian name to it. They said oh, it's Christmas. It's Christ-mas and we'll celebrate the birthday of Jesus though He wasn't born December 25; yet we'd, you know, we'd celebrate the birthday of Jesus. 사실 오늘날의 교회절기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에 기독교 이름을 걸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의 축제일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사투날리아’ 즉, 동지를 지나서 열리는 이교도들의 농번기 축제를 기독교들은 함께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름을 넣었지요. 그것은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And so you can all go out and you can do the things that the world does. You can buy your gifts and you can decorate your trees and you can, you know, join the pagan world in their celebration of Saturnalia. Helping the poor old

solstice. Be sure and put the lights around the house and on your trees and all, so that you can help the sun make it through, you know.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무시해 버릴 수도 있으며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나게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잔뜩 살 수도 있고 집 주변과 나무들을 눈에 띄게 화려한 장식으로 더 눈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축제일, 사투날리아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동짓달을 보면서 말이죠.

After all, we got to help poor old sole; he's about to die. Days are getting shorter; every day is getting shorter. It's just about gone the twenty-second of December. Oh, it's almost -- this is about it, you know. It's almost over; sun is just about ready to flicker out. Get your candles lit; get your lights lit, you know. Help it out and oh, all right, by the twenty-fifth, it's observable that the days are getting longer. We made it. We helped the old sun. 날마다 해는 점점 짧아지면서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태양은 마치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12월의 스물 두 번째 날, 곧 동짓날이 지금 막 지나갔고 모든 것을 분주하게 지나느라 금새 끝나 버립니다. 태양 빛은 서서히 지고, 촛불은 켜지고 거리의 불빛이 밝혀지고... 이제 드디어 25일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루 해가 조금씩 길어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웬거야' 사람들은 마치 힘겹게 저물어가는 태양을 힘껏 돕느라 무슨 수고라도 한 것처럼 이제 근사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All right, let's celebrate. Let's get drunk and let's pass out presents and let's decorate trees and, you know, have a big celebration. The sun made it through. Let's legitimize it though for Christians so it's Christ-mas, celebrate the birthday of Jesus. "자, 이제 놀아보자. 술도 마시고 선물도 교환하고 나무에 장식도 하고, 큰 축제를 여는 거지. 태양력에 따라... 예수의 탄생일도 정하고, 그리스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도 즐기려면 그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정하는 게 좋겠군."

Make sure that your celebration is more Christian than pagan, please. The vain traditions received from our fathers; hard to break from, isn't it? But we've been redeemed not with the corruptible things from that empty life of vain traditions. 이제 여러분은 이교도(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크리스마스의 유례에 대해 더 주의해야 할겁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온 이 무익한 전통들은 정말 끊기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상들의 이러한 유전과 망령되고 공허한 삶, 그리고 부패할 것들로 구속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Redemption; this is all intertwined back in the Old Testament, the idea, the concept of redemption, the idea of a sacrificial lamb. Going back to the Passover. The firstborn to be slain in every household. Protect your house. Take a lamb out of the flock. Let the lamb be the substitute for the firstborn. Take a lamb of the first year without spot and without blemish. Kill it, put its blood in a basin and with hyssop, sprinkle the blood on the lintels and the door post of your house, and when I pass through the land tonight,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that house. I'll know that there's been a sacrifice, a substitute lamb for the firstborn of the house. I'll pass over that house. 구속함은 구약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난 핵심주제로, 희생된 어린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모든 애굽 집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너희 가정을 지켜라. 양을 하나 잡아 네 장자를 대신하여 죽여라. 점 없고 흠 없는 일년 된 어린양을 골라 희생시키되 그 피를 우슬초와 함께 대야에 담아 집의 문방과 설주에 뿌려라. 내가 오늘 밤 그 땅을 지날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거기에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양이 희생된 것을 내가 알리라. 내가 그 집을 넘어 가리라.

And so this idea of a sacrificial lamb, God having provided ultimately His Lamb, His Son Jesus Christ, who shed His blood for the redemption of man. So the price of redemption,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 희생양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그의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의 댓가입니다.

Who verily was foreorda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20),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Again, God had planned before He even created the world. Knowing that man would fail. Knowing that man would sin, but desiring to prove and to show to man how much He loved him. God plan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o demonstrate His love by the sending of His Son, to bear man’s sin,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your guilt and to die in your place; thus proving that God loves you. You never need to doubt the love of God.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there God has declared, “Manifested His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Romans 5:8).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할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셨지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이시기 원하시고 입증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와 싸우고,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은 그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롬 5:8)

And so was ordained or “foreorda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ut was manifest, though it was planned of God from the beginning, it was not fulfilled until Jesus came and went to the cross.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에 정해진대로 혹은 세상의 기초가 생겨나기 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사 이것이 태초부터 계획되었을지라도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까지 완성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manifest in these last times for you, Who by him [by Jesus Christ] you believe in God, that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gave him glory; that your faith and hope might be in God. Seeing that you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unfeigned love of the brethren, see that you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1:20-22)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And truly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those who have received it is that we are to love one another. Jesus said,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e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By this sign sh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that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4-35).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복음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요13:34,35)

And Paul describes the kind of love that we’re to have for each other. “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it envies not; it doesn’t vaunt itself, is not proud,

isn't puffed up, doesn't behave itself strangely, seeks not its own. But believes all things, bear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It never fails" (1 Corinthians 13:4-8). That's the kind of love we're to have for one another. Loving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바울은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하는 사랑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전13:4-8)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The greatest demonstration the church can give to the world is the love within the body for each other. Loving one another with unfeigned, that is, not that fake love that is so often a part of the whole world scene. "Oh darling, I love that dress you're wearing tonight." Just phony. People say, "Oh, I don't go to church because so many hypocrites in the church." Then you should not go to movies. There's more hypocrisy in that crowd than there is in any church crowd. Unfeigned love. Not faking it. "Love each 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한 몸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로만 하는 그런 거짓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입은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군요." 이런 건 단지 꾸며낸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난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거긴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관 같은 곳엔 더욱 가지 말아야 되겠죠. 거기엔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위선자들이 넘치는 곳이니깐요.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Being born again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Now “thanks be unto God who has begotten us again.”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Being born again, not of corruptible seed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Now I was -- I was born once of corruptible seed. I am the by-product of my dad and mom. Receiving twenty-three chromosomes from each, I am an interesting composite of them both. But the fact that it is corruptible seed is very obvious by the aging processes that have taken place, through the years of the catabolic forces have worked, and I'm gradually **eroding** away. Born once of corruptible seed. But I've been born again of incorruptible seed, the new life that I have. Is it going to pass? It's going on forever. “Being born again not of corruptible seed,”

나는 원래 부패하기 쉬운 육의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산물입니다. 각각으로부터 23개씩 염색체를 이어받아, 이를테면 나는 두 사람의 흥미로운 합성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기 쉬운 씨는 한곳에 자리잡게 되면 세월의 이분화 작용에 의해 노화 되어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는 점점 부식되어 가게 되겠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요.

but of incorruptible, by the word of God (1:23),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It was the word of God planted in my heart that brought forth spiritual life.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sharper than a two-edged sword, able [to decide] to divide between the bone and marrow, soul and the spirit” (Hebrews 4:12). It’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the intents of the hearts of man. I’ve been born again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심겨짐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4:12).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Jesus said, “A sower went forth to sow in the field and he planted his seed. Some fell on the wayside, some fell on stony ground, some fell among thorns, some fell on good ground”. And then later on He said -- Now the disciples said, “Lord, explain to us that parable. What were you talking about?” And Jesus said,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seed is the Word of God” (Luke 8:5-11). We’ve been born again by incorruptible seed, the Word of God, that incorruptible seed whereby we have been born into a spiritual life. And though the old man perishes day by day, the new man is renewed by the Spirit.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8:5-

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씨는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옛사람(겉사람)은 날마다 후패 할지라도 새사람(속사람)은 영으로써 날마다 새로워 진다는 것입니다.

Hey, I'm stronger, healthier than I've ever been in my whole life spiritually. Though I have more aches and pains and decrepitness in the old body than I've ever had in my whole life physically. As the old man perishes, the new man is becoming stronger day by day. **And one of these days this old body just isn't going to be able to handle the new man.** And so my spirit will move from this corrupting body into "the new building of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나는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온 세월에 비해 영적으로 훨씬 강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편입니다. 내가 일생동안 씨 왔던 내 육신은 이제 점점 썩시고 아픈 증세가 있고, 이 늙은 몸은 더욱 노쇠해 갑니다. 성경은 옛사람이 후패할 때 새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 했지요. 이제 옛사람이 새 사람을 조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도 이 부패한 육신으로부터 옮겨지겠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후 5:1절 말씀입니다)

This inheritance that is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reserved in heaven for me because I'm being kept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이 유업은 나를 위하여 천국에 예비된, 시들지 않고 순결한, 그리고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간직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So the flesh is like grass, and all of the glory of man is like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thereof falls away: But the word of God endures for ever (1:24-25).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So things that are passing, things that are lasting. We've been redeemed not with corruptible things that are going to pass away, silver and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I've been born again, not with the corruptible seed but the incorruptible, the Word of God, “which lives and abides forever” (1:23). 어떤 것들은 지나가고, 어떤 것들은 지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부패할 것들로 구속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Jesus said,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Matthew 24:35). The universe is gradually wearing down. The sun is giving off 1,200,000 tons of mass every second. Gradually wearing down; that is, irrecoverable mass. One day the sun's going to flicker and die. But maybe we'll go into supernova first, flare and die. They estimate another fifteen, twenty billion years and the sun's going to have it, have had it. That's right, the word of God will still be around. I'll still be around because I've been born by the word of God into this incorruption, this new life, this eternal life.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점점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태양에선 매초마다 백 이십만 톤의 대량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소모해 가는 것이며 다시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태양은 깜박거리다 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처음엔 강력한 은하계를 찾아 헤매다가 터져버리거나 죽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앞으로 백 오십 억년에서 이백억년 정도를 더 유지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는 한 그 말은 맞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간직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썩지 않는 새로운 삶,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my word”, Jesus said, “will never pass away.” I’ve been born by that word of God, that word which abides forever. The flesh, all flesh is as grass. That is, it’s going to perish. It’s going to, like the flower, it’s going to wither and die.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육체는 모두 풀과 같이 마르고 마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질 것이며 또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word which by the gospel is preached unto you (1:25).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Hey, we got something. We’ve got hold of something here that’s eternal, something that’s going to last forever. And I have been born again by that into this eternal life.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속될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Wherefore laying aside all malice, and all guile, and hypocrisy, and all envying, and all evil speakings (2: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Set these things aside, we’re to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Set aside the envying, the hypocrisy, the guile, the evil speaking.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다른 사람을 사랑 하십시오. 시기하는 마음과 거짓, 꾀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And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If so be that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racious (2:2-3).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esire sensationalism. They desire the hot fudge sundaes, and you can see them advertising the spiritual hot fudge sundaes in the paper every Sunday, you know. Come and see; come and taste the hot fudge, you know, delicious, and ours is more exciting than anybody else's. Guaranteed to titillate your sensors, get you excited emotionally; you don't grow by that, though, that's the problem.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희구합니다. 그들은 초코렛 아이스크림을 그럴듯하게 장식해놓은 뜨거운 후식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 주일마다 신문지면에서 이렇게 영적인 입맛을 현혹시키는 선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와 보시오; 와서 뜨거운 차를 맛 보십시오. 우리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훨씬 짜릿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건드려 주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You see, it may taste good, it may be exciting to eat, but it isn't nourishing. It doesn't strengthen you. It has very little value when the real testing comes. You'll find yourself weak and anemic. But if you have partaken of the word of God and you know from the word, God is good, God is gracious; then when the trials come, you're strengthened by that word and that knowledge of the goodness and the graciousness of God. So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ight grow thereby.” Just like a new baby. 아마도 그

맛은 훌륭할 것이고 먹기에도 흥겹겠지만 영양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삶에 실제적인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되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약한지 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깨닫는다면, 시련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그 지식과 말씀으로 강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And how I love to see these new babes in Christ. These people have just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recently, how I love to see them devouring the word. I get a thrill every time I go by the tape library and I see people carrying bags of tapes in and carrying bags of tapes out. I love it!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같이 거듭난 영혼을 보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나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다 내가 설교 녹음테이프 자료실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설교말씀을 녹음한 테이프를 가방에 잔뜩 넣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Some people came to me this morning.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be here tonight, and they said we came from our ranch in Texas. They live twelve miles out of a big metropolis of twelve hundred people. Now in Texas, you know, you can get lost way out there in the country. And these people live way out there, but they said, "We've been feeding off of yours and Chuck Missler's tapes, and we just had to come out here and to see you and just to give you thanks. And we're going to be in Chuck's class on Monday night, too, because we want to thank him". I love it! 몇 사람이 오늘 아침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1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텍사스는 길을 잃기 쉬운 곳이죠. 우리가 바로 거기서 삽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척 미슬러(?)의 말씀 테입으로 그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여기에 꼭 와서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여기서 머물 것이고 월요일 밤에 척 미슬러 목사님의 성경공부에도 참석할 생각입니다. 그 분께 감사를 전해야 하니깐요.” 이 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The word of God going out,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It’s the word of God that feeds you, that develops spiritual growth. You cannot grow spiritually apart from the word of God. Now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You can only experience spiritual growth through the word. It is the food that feeds the spiritual man and apart from the word of God, you cannot experience real spiritual growth. You can experience spiritual excitement through experiences and sensationalism, but you cannot experience real growth. That take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자라게 할만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먹일 것이며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의 말씀으로만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먹이는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과 그런 체험들은 영적인 경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수는 있으나 바른 성장을 경험하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하십시오.

So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as newborn babes.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If so be, you've tasted that the Lord is gracious. [The Lord] To whom coming, as unto a living stone, disallowed indeed of men, but chosen of God, and precious (2:3-4),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It's interesting to me. Here's big old, rough Peter, the fisherman, I mean; he's just as tough as nails, you know, he's ready for anything. Ready for a fight. You want to fight? You know, want to take Jesus? Man, I'll -- he draws a sword, he starts to flail. You know what I mean? He's ready for it, against him all these soldiers. Hey, you'll see it out, you know, tough, rough guy. And what seems to be his favorite word when he gets, you know, he's a marshmallow.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험 많은 어부 출신 촌뜨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거칠고 긴장한 사람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싸울 각오해라, 한 판 붙자구? 너희가 우리 예수님을 체포 하겠다구?...” 그는 검을 빼 들었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모든 군인들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난폭하고 거친 한 사나이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I mean, you come to the things of the Spirit. His favorite word is “precious”. Now that's not a word for a big, tough guy, you know, “precious”. I love the way the Lord makes marshmallows out of some of these jocks. It's beautiful to me. And so all the way through you find Peter using this word “precious”. I think that's precious.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잘 쓰는 단어는 ‘보배로운, 귀한’ 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얼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말은 거칠고 드센 사나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걸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보배로운'이란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So coming to Jesus, to whom as we come to Him, as unto the living stones, though disallowed indeed of men, but he is chosen of God, and he is precious (2: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벧전2:4)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Now Jesus is referred to as the stone. In the book of Deuteronomy chapter thirty-two, the song of Moses, God is referred to there as a rock and the gods of the heathen as rock. Their rock is not as our rock, he said. And there are references to God as a rock. 예수께서는 (산)돌로 묘사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바위로 묘사되었고 또 이방인의 신들도 바위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방 신을 바위로 명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이라 언급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In the book of Daniel, in the vision of, or dream of Nebuchadnezzar, he saw this huge image that represented the kingdoms of men; beginning with the Babylonian kingdom and the succession of kingdoms through the Medo-Persian, Grecian, the Roman, until this final world governing kingdom of ten nations. He watched this great image until there came a rock, not cut with hands, and he saw this great image in its feet so that the whole image crumbled and the rock grew into a mountain that covered the earth.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 중에 혹은 느브갓네살 왕의 꿈에, 그는 세상 왕국을 대표하는 아주 커다란 형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왕국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세상을 통치하는 열 개 왕국까지 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 모양의 형상이 나타나더니 그 전체 형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또 그 돌이 자라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덮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Now when the Lord explained that dream to Nebuchadnezzar, the rock is the coming of Jesus Christ. He is the rock not cut with hands that will bring an end to the worldly governments and will establish God's kingdom that will cover the earth and never end. When Moses was taking the children of Israel through the wilderness and they cried for water, Moses took his rod and struck the rock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God and water came forth. 느브갓네살 왕이 꾸민 꿈에서 그 바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바위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속적인 통치의 종말을 가져 올 것이며, 영원히 온 세상을 덮어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원망하며 소리쳤으며,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Now Paul tells us that that rock that was with them in the wilderness was Christ, that rock smitten; that is, at the cross whereby the water of life flows out unto man. Water was -- they were dying. They were perishing of thirst in the wilderness ready to die, until the water flowed forth out of the rock, the water of life. They drank and they were sustained.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에 세계 맞은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흘러 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타는듯한 목마름으로 거의

아사직전에 가 있었고, 그 생명의 생수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을 때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Even so, we perishing in the wilderness of sin, ready to die, Jesus smitten for us, the water of life flows forth and we drink and we are saved. We have life. That's why the second time when they cried to Moses for water and he went in to God and God said, "Speak to the rock and it will bring forth water". But Moses in his anger went out and he said, "Must I smite this rock again to give you water?" And he smote it the second time, and God said, Moses, that was a mistake that you're going to have to pay for. 우리 역시 죄의 광야에서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신 예수께서는 생명의 물을 흘러 우리로 마시우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 때문에 두번째 부르짖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가서 명하라. 그리하면 반석이 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차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 나오며 말하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하며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실수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You see, the rock once smitten never needs to be smitten again. Jesus doesn't have to die again. He doesn't have to be crucified again. Once smitten, all you have to do to receive the water of life is to speak to the Rock. Just call upon Jesus Christ. 이 말씀은 한번 고통 받은 반석이 결코 다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께서는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희생 당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삶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반석에게 그저 명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So here he says, coming now to this stone, this living stone that was disallowed by the builders; that is, Jesus was rejected by the Jews as the Messiah, but yet He was chosen of God, and precious. 베드로는 이제 건축자들에게서 버려진 산돌 곧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분은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절 당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보배로운 분이셨습니다.

Now you also, as living stones, are built up as a spiritual house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The church, a spiritual house; you are a holy priesthood. We'll be called a royal priesthood soon. But here,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a holy priesthood, to offer up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by Jesus Christ (2:5).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Now what are the spiritual sacrifices that we offer up? You remember in the fifty-first psalm, even David had a hint. He said, “Sacrifices and offerings thou wouldest not or thou delightest not in”. In another psalm he said, “Sacrifices and offerings thou wouldest not, but a body thou has prepared me”, in his Psalm, I think it's 89, in reference to Jesus. But in Psalm 51, “Sacrifice and offering you take no delight in but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nd a broken spirit and a contrite heart thou would not despise”. So he speaks of a spiritual sacrifice, a broken spirit befor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영적 제물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영적 제물에 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희생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희생과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히10:5)라고 말합니다.(원문 확인요). 이것은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러나 시편 51편에는 “희생과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나, 상한 심령은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영적 희생 제물이라 말한 것입니다.

Then in the book of Hebrews chapter thirteen, “Let us then offer unto God the sacrifice of praise, even the fruit of our lips unto him” (Hebrews 13:15). So the spiritual sacrifices that we offer to God are our praises unto Him. Coming before Him with a broken heart, offering our praises to God. 히브리서13장(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제물은 그 분을 향한 우리의 찬송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분 앞에 나와 찬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As a priest I have access, and that was the thing of the priesthood; he had access to God. And as a priest, a holy priesthood that I have, as a child of God; I can offer spiritual sacrifices. I can come to God and worship Him and praise Him and offer Him these spiritual sacrifices, the fruit of my lips unto Him. “Which sacrifices are acceptable unto God by Jesus Christ.” If offered in Jesus’ name, if offered through Jesus, they’re acceptable. 예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또 그의 자녀로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와 그 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입술의 열매로 영적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진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Wherefore also it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 Behold, I lay in Zion a chief corner stone, elect and precious: and he that believeth on him shall not be confounded or confused. Unto you therefore which believe he is precious: but unto them which are disobedien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disallowed, the same is made the head cornerstone (2:6-7).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Now this particular psalm, no doubt, impressed Peter pretty much. Because when Peter was called before the council in the fourth chapter of Acts to answer for the miracle that was done to the lame man at the temple; Peter said, If we are examined today because of the good deed done to this impotent or lame man, judge ye. But we, you know, have done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 it known unto you, all you that dwell in Jerusalem tha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this man stands here before you whole. And He is the stone, Peter said, which was set of naught by you builders, but he's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이 특별한 시편의 말씀(시118:22)은 의심할 바 없이 베드로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있던 절름발이를 고친 일로 관원들 앞에 불리워 갔을 때 베드로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4:9-12)고 그 시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Now there is in the psalm this reference and Messianic reference to the Messiah, Psalm 118, of the stone, which was set of naught by the builders becoming the chief cornerstone, work of the Lord. A prophecy concerning Jesus Christ. A prophecy, that He would be disallowed or rejected by the religious leadership. 시편118편에서 인용한, 건축자에 의해 버려진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이 언급은 주님의 사역과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에 의해 거절과 배척 당하게 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But yet, God has ordained that He should be the chief cornerstone, and of course, He is that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e church is built. Jesus sai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What rock? Peter's confession,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church has been built on that chief cornerstone. Jesus Christ i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야 함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라는 머릿돌,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Now there is a story that in the building of Solomon's temple, the stones were all quarried away from the temple site and brought to the temple site. They were quarried and actually chiseled out so that they were built in such an interlocking way and chiseled out to such perfection that they used no mortar. The stones just set on each other without even the use of mortar being hewn out so accurately and carefully. And that as each stone came, those builders

would just place it in the building, but no sound of hammer, trowel or whatever went on in the building of the temple. That was all done in the quarry away from the temple. And that story goes, that this one stone came and the builders looked for it on the plans, they couldn't see where it fit in the building and finally, they just tossed the thing over in the bushes. Cast it aside. 솔로몬의 성전건축에 관한 이야기에 보면, 성전에 쓰인 돌들은 귀한 돌들을 채석하여 정교하게 다듬은 다음 서로 맞물리게 하여, 다시 다듬되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돌들을 다듬어 가져오면 건축자들은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각각 아주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서로 얹어 놓아 적합한 자리를 잡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법으로 인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망치나 미장이들이 쓰는 흙손 같은 어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 되었고 그것들을 성전 안에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채석된 돌들로 건축하는 고로 채석한 돌들이 들어오면 건축자들은 그 돌들을 보면서 어느 위치에 놓을지 계획을 세워 보다가 육안으로 보아 어디에 적당한지 알 수 없을 경우 그것들은 덤불에 치워 놓습니다. 그냥 한쪽 곁에 버리는 거지요.

And when the temple was complete, they were missing this chief cornerstone. So they sent to the quarry, All right, we're ready now for the ceremony; we want to put in the cornerstone, and all, and get this thing out. Where is this cornerstone? And the quarry foreman sent back and said, I sent it to you already. It's been marked off on my inventory. They said, Well, it's not here, we don't have any. He said, Well I've already sent it. It's already gone, you know. And so some fellow went over in the bushes and found this stone that they had thrown away. And they realized, Wow, this is the chief cornerstone of the whole building; the one that's been rejected.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자는 초석을 놓는 것을 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석장에 보내 봅니다. “이제 준공식을 해야 겠는데 초석을 다시 놔야 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시 꺼내 놔야 하나... 근데 모퉁이 돌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채석장의 감독이 답변하길, “제가 보낸 지가 벌써 오래 됐죠. 제 물품 목록에 벌써 표시가 되어 있는 걸요? 여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참! 얼마 전에 몇 사람이 덤불 속에서 그 돌을 찾았다는 것 같은데 뭐 대수롭지 않아서 바로 던져 버렸대네요.” 그리고 기억해 내기를 .. 아.. 그리고 보니 이 머릿돌로 쓴 게 바로 그 모퉁이 돌이네.. 아이구.. 이게 바로 그 버린 돌이네요”

And so an interesting prophecy, then, that experience. The prophecy of what would happen with the temple, became the fulfillment with Jesus. The stone disallowed by the builders, but yet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as Peter said, There's not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So the twofold effect, though; He is made the head of the corner but yet He is, 정말 흥미로운 예언이요 기막힌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발생한 일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돌은 건축자에 의해 버려졌지만 결국엔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으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중적 결과를 성취하셨습니다.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ce, unto those which stumble (2:8)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Jesus is a cornerstone, the foundation upon which the church is built, but yet He is also a stumbling stone. The Jews stumble over Him because of the crucifixion.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Messiah being crucified and so they stumbled over this stone. He became a rock of offence to them. Paul speaks of Christ crucified, to the Jews foolishness -- I mean to the Greeks foolishness, but to the Jews an offence; “but unto us which are saved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예수께서는 교회가 세워진 기초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그는 또한 거치는 돌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돌에 부딪혀 거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범죄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at the word, being disobedient: whereunto also they were appointed (2:8).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Now again, the idea of God’s fore-ordination and election and they were appointed unto this disobedience.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과 선택 하심과 예정하신 뜻에 대해 그들이 불순종 했다는 것입니다.

But ye are a chosen generation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Jesus said, “I have chosen you, and ordained you,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s” (John 15:16). You are, 요15: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a royal priesthood, you are a holy nation, you are a people destined for a possession (2:9)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That “peculiar people” is a poor translation. You go around with your eyes crossed and tongue hanging out, you know, peculiar people. It’s a bad

translation. You are a people destined for a possession. The word in the Greek is possession. You're a people of the possession. You are to possess the kingdom, destined to possess the kingdom of God. '피컬러 피플' 을 문자 그대로 "별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서툰 해석입니다. 눈은 풀어지고 혀는 내민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할 뿐이죠. 이걸 아주 빈약하고 어설픈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을 그리스어로 풀면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 왕국(나라)의 소유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that you should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the darkness into his marvellous light (2:9):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And so the purpose of God, that you should show forth the praises of God through your life because God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When Jesus called Paul to go forth and preach the Gospel, as he is relating his experience of conversion unto King Agrippa, and he tells him of that call of God upon his heart; it was to open the eyes and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hat they might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inheritance among them which are sanctified by faith in Jesus. Turn them, you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power of darkness. You've been redeemed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brought into the glorious kingdom of light.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 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의 개종한 경험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김으로써 예수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유업을 얻게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옮기 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의 되찾음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Wherein in times past you were not the people of God, but are now the people of God: which had not obtained mercy, but now you've obtained mercy (2: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Time passed. You weren't one of God's chosen, now you are. You hadn't received the mercy, now you have.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었으나 이제 엄연히 그 분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 얻은 자입니다.

Dearly beloved, I beseech you as strangers and pilgrims (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Now he's talking about your relationship to the Lord. The Bible says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He that hath the love of the world in his heart hath not the love of the Father.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 the pride of life, is not of God” (1 John 2:16), but it is a part of the whole worldly system. You are not of the world. You're a stranger. You're a pilgrim.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5.16)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속된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인이요 순례자입니다.

As a stranger and a pilgrim,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abstain from the fleshly lusts (2:11),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All that is of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bstain from these fleshly lusts,”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 성경은 말합니다.

which war against your soul (2:11);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They would destroy you. 그것들은 여러분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Having your manner of life honest among the Gentiles: that, whereas they speak against you as evildoers, they may by your good works, which they behold,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So live a life that is a witness before the world. They may say ugly things to you. They may sneer at you. They may mock you. But let your life be a witness that when the Lord raptures you, they're going to say, Wow, that guy was right, you know. He was really a neat guy, you know, he was all right. He did the right thing, you know, oh man. So, they will.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례히 말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어. 그가 옳았구나, 이걸 어찌지...” 그들은 가슴을 치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Submit yourselves to every ordinance of man for the Lord's sake (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Now again, as a witness, as a testimony. There are some laws that are hard to live with, but as a Christian, submit yourself to them. 예수의 증인으로써, 증거자로서 살아가기에 힘든 이 세상의 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whether it be to the king, as supreme; Or unto governors, as unto them that are sent by him for the punishment of evildoers, and for the praise of them that do well. For so is the will of God (2:13-15)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That you submit to the ordinances of man. That's God's will for you.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that with your well doing you might put to silence the ignorance of foolish men (2: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So really, the position that the Jehovah Witnesses take in not saluting the flag and conscientious objections, and so forth, is really not a scriptural position. We are to submit to the ordinances of man, to every ordinance, for the Lord's sake, even though we may grind at it, for the Lord's sake. It's God's will that we not be an offence. We might put to silence the ignorance of foolish men. 여호와의 증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나, 양심에 따른 복종 등은 참된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복종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하며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로 인해 착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오직 침묵으로 대해야 합니다.

As free but not using your liberty as a cloak of malicious
maliciousness (2:16),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Now coming back to Christmas celebration, I'm free to do it; I'm free not to do it. That's to me the glorious thing. A Christmas tree, I'm free to have one, I'm free not to have one. Don't get hung up in a legal kind of a thing. God doesn't want a legal relationship with you; He wants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And so I'm free, but yet be careful that you don't use your freedom just to cover your own maliciousness. 크리스마스 축제를 예로 들어 봅시다. 나는 사실 자유롭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도 자유롭고 하지 않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라, 물론 나는 트리를 가지는 것에도 자유하고 갖지 않는 것에도 자유합니다. 무슨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역시 자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자유를 여러분의 악한 것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Say, Well, I'm free in Jesus' name. You're not really free to live after the flesh or the lust of your flesh; you're free not to live after the lust of your flesh. That's a freedom the world doesn't have; they're bound by their flesh. They're slaves to their flesh. But freedom that we have in Christ is that we don't have to live after our flesh anymore. Thank God. What a glorious freedom. So don't use

that freedom just as a cover. Well, I'm free in Jesus. I'm not under law, under grace I'm free. Don't use that as a cloak for maliciousness.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좇아, 혹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세상은 그 자유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중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는 우리로 더 이상 육신을 좇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유인지요. 절대로 이 자유를 그저 눈 가리개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율법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아래 있습니다. 절대로 악의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onour all men. Love the brotherhood. Fear God. Honour the king (2:17).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Servants, be subject to your masters with all reverence; not only to the good and the gentle, but also to the mean ones. For this is thankworthy, if a man for conscience towards God endures grief, suffering wrongfully (2:18-19).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Because of my conscience towards God, I've been wrongfully accused and I suffer the grief of being wrongfully accused. That's thankworthy, that's praiseworthy. That's grace. Actually the word is “this is grace”, if a man for conscience toward God endures grief, though he has been persecuted wrongfully. 하나님을 향한 열심때문에, 나는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큰 슬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고, 오히려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큰 은혜죠. 사실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말의 뜻은, 이를테면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슬픔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For what glory is it, if, when you are buffeted for your faults (2: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And servants were often buffeted by their masters. You make a mistake and he'd come and cuff you, you know, serve some temperamental master, yell and cuff you every time you did something wrong. You are a servant. Well, a lot of times you know you walk away, and boy, if I had a chance, man, I'd really nail you one, you know. You go mumbling under your breath of revenge and everything else. But “what glory is it, if, when you are buffeted for your faults.” Say you've done something stupid and you get cuffed and you take it well; so what? You had it coming. 종들은 주인한테 자주 맞기도 합니다. 종이 실수를 하게 되면 주인이 와서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죠. 성질이 급한 주인을 섬겨야 할 때도 있으며, 또 그들은 종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며 매사에 소리를 지르고 때립니다. 만일 우리가 종이라면, 그리고 어찌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인을 한대 쥐어 박을 지도 모릅니다. 증얼거리며 복수를 다짐할 것이고 어떻게든 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으로 얻어맞게 되면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뭔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주인에게 얻어 맞겠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그저 댓가를 지불한 것이지요.

but if, when you have done well, you suffer, and you take it patiently (2:20),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This proves something. -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네요.)

this is acceptable with God (2:20).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Suffering wrongfully. How we hate to do this, don't we? If we get punished when we are actually innocent, man, how we cry. I mean, I've had that happen to me. My father was, had a short fuse. I mean, he was very quick to react. He was a reactor. He was a responder and then he would think later.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되길 싫어합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했음에도 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저에게도 생각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주 빨라서 금방 흥분하곤 하셨죠. 생각하는 것보다 반응이 항상 너무 빨라서 문제였습니다.

And my youngest brother would take advantage of this. Now he came along some seven years after me so he's just a little kid. We all loved him. I'm serious. I mean, my brother Bill, I loved him dearly. But he knew that being the little brother, he was sort of a Joseph in the family come lately. My dad said to my mom, If you will give me a redheaded freckle-face boy; buy you a Cadillac car. Well, he was born and he had red hair and of course, he developed freckles as he grew up. My mom never did get a Cadillac, but you know, promised her anything but give her our page. He did give her perfume. But my youngest brother would start screaming and my dad would come out, feeling off his belt and he'd belt my other brother and I. And after belting us, then he'd say, What happened? 나의 막내 동생은 아버지의 이러한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7살이나 아래인 동생은 그저 어린애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아이를 사랑했지요. 나는 내 나름대로 아주 진지하게 나의 동생 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빌은 우리집에선 요셉처럼 막내로 태어난 아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만일 당신이 머리가 붉은 아기를 낳아 주면 내가 캐딜락 차를 사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태어났고 물론 머리가 붉었습니다. 자라면서도 머리가 붉었죠. 어머니는 캐딜락을 갖지 못했습니다. 호출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물론 받지 못했지만 대신 아버지는 어머니께 향수를 사 주셨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가 외출했다 집에 오셨을 때 제 막내 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금새 화가 나셨죠. 아버지는 다른 동생과 나를 일단 무섭게 때리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때리고 나서는 “그런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지요.

Well, my youngest brother, he'd just look at us and laugh. He'd say, I'm going to get you guys in trouble, you know. If you know we had done something he didn't like, okay, I'm going to get you and he'd start screaming. Dad would come up, give up the belting and then he'd say, All righ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ell, we didn't do anything, you know. Why was he screaming? And then he'd find out and well, I'm sorry, you know, but. And boy, I mean, we would really make my dad suffer for that kind of stuff; you know, we were punished unjustly. Oh man, we would get all righteous indignation and just, you know, you did that. But you know, in reality, I did so many things I should have gotten belted for and he never found out. But I always figured I was still on the plus side, you know. 그러자 막내 동생은 우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냥 웃어댔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냥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것 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대강 아셨겠지만, 나는 (너무 속상해서) 그 녀석을 붙잡으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또 오셨죠. 때리기를 그만 두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왜 그 애가 소리를 질렀는지. 그리고 문제의 진상을 알아보고 “그랬구나, 미안하게 됐다”라고 해야 하는 것을... 그런데 도리어 아버지가 아픈 때로 우릴 야단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정말 공평치 못한 처사로 벌을 받게 된 우리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는 채 여러 번 매를 때리셨고 우리는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애썼지요.

Now Peter is saying, Look, if you deserve a spanking and you get one, and you take it patiently, so what? You had it coming. But if you don't deserve and yet you get a spanking and you take it patiently, hey, then that's acceptable. For God's sake you accepted graciously persecution or buffeting or things that come your way where you are really innocent. You don't have it coming. Rather than getting all upset and threatening and everything else, taking it patiently.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벌 받을 짓을 했으면 잠잠히 받아라. 왜냐하면 마땅히 받을 짓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을찌라도 잠잠히 받아라. 영광스런 박해나 핍박이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오는 고통들을 주를 위하여 받으라. 그것은 불의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다. 화내거나 놀라거나 어떤 것으로도 말고 오직 인내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For even hereunto were you called: because Christ left us the example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He also suffered for us. And in His suffering He left the example for us.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당하신 고통은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that we should follow his steps: [for you see] He did no sin, neither was any guile in his mouth: And when he was reviled, He didn't revile back at them again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2:21-23);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As the lamb before her shearers is dumb, so he opened not his mouth” (Isaiah 53:7).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사53:7)

I'll get even with you. You wait till the Day of Judgment, you'll fry, man, you know. He didn't threaten.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심판의 날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He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s righteously

(2:23):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And this is the thing. When things come our way, we can't understand, just commit your life to God. Well Lord, it's all in Your hands. And don't get all threatening and I'll get even and all this kind of stuff. Just commit it all to God.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생겨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위탁할 밖에는요. "주님, 모든 것이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온갖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Jesus said, If you love those that love you; so what? The heathens do that. You should love those that hate you. Then that really proves that God's love dwells in you. So if you're persecuted, you got it coming; then so what? But if you don't and you take it well, if you learn to just commit your life to God, Well, it's all in the Lord's hand. Oh but that isn't fair. That's not right. I know it isn't but yet, you know, God's taking care of it. God will take care of it. And if we'll learn to just commit our ways completely to God, then God will take care of it.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박해를 당할 때, 그저 대가를 지불했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는가. 행하지 않은 일로 핍박을 당할 때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말기는 법을 배운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건 좀 불공평한데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줄 나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그 분께 맡기는 것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Now if you are out to defend yourself, then God will let you. But if you will learn to just commit the thing to God, say, "Well, the Lord will take care of it, it doesn't matter. The Lord's going to handle it"; then the Lord will handle it. He will take care of it. And so learn to just really commit your life to Him. As Peter will tell us in the next chapter or two, "If you suffer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just commit the keeping of your soul to him as a faithful creator." (1 Peter 4:19).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탁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그래, 그것을 돌보아 줄 것이다. 염려할 것 없다. 내가 그것을 다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분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 할찌어다”(벧전4:19).

Jesus is our example. He suffered wrongfully at the hands of man. We should follow in His steps. He didn't pour out guile from His mouth when they were doing these things. In fact, what did He say as they were nailing Him to the tree? He sai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Luke 23:34). That's your example. "Pray for those," Jesus said, "who despitefully use you" (Matthew 5:44). And so you are the servant of God. "He threatened not

but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s righteously.”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예수께서는 우리의 분이 되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힐 때 어떤 책략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눅23:34)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따라야 할 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마5:44)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라고 하셨습니다.

Who his own self bo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It was your sins that Jesus was bearing there. He was suffering wrongfully. He had not sin; it was for your sins that He suffered. Bearing y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that we, being dead to sins, should live unto righteousness:
by whose stripes you were healed (2:24).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I think that it is wrong to limit that healing to just spiritual healing as some seek to do. I think that it is broader than that. 나는 어떤 이들이 이 치유의 말씀을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단지 영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의미보다 훨씬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For ye were as sheep going astray; but are now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the overseer of your souls (2: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So he is quoting actually freely from Isaiah, fifty-third chapter,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ve turned every one to our own way;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6). “Who in his own self ba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We being dead to sins should live unto righteousness by whose stripes you are healed.” “For we were as sheep going astray.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but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베드로는 이사야53장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this glorious salvation, the hope, the living hope of an inheritance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We rejoice with a joy unspeakable in full of glory because we are heirs of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And we are going to inherit that eternal kingdom and we will live and reign with Him, world without end.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산 소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요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있을 유업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 받아 세상 끝날 까지 그와 함께 살며 다스릴 것입니다.

Oh, what a blessed hope and what a glorious future await every child of God as we wait for our King to come and manifest Himself. What good words of exhortation. Go back this next week and read the first two chapters again. Let it soak in. Let the richness of it just feed your spirit, that you might grow and become strong.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은 얼마나 축복 받은 희망이며 영광된 미래입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완전히 심취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흡족히 먹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good Word. May Your Holy Spirit now apply the truth in our daily lives. Help us, Lord, as we live in the world not to partake of the world. Help us, Lord, not to live after the flesh but to live after the Spirit, knowing that we are dead to the flesh to the old life. May we be alive unto You in and through Jesus Christ. Oh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s Thy name in all the earth. Thy glory fills the heavens and they fill our hearts and our lives tonight. May we live to the praise of Thy glory. In Jesus' name, Amen. 아버지, 이 귀한 말씀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의 삶에 진리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육신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육으로 죽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 영광이 저 하늘과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소서. 기록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much food and all to be found there, I feel like -- I like to just start all over right now and go back through these first two chapters again. Just to, you know, suck out more of the richness that is there. But we'll leave that for you to do on your own. Go back and review it.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ight grow thereby." 많은 영의 양식과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베드로 전서1장과 2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던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하겠지요.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God bless you, give you a very fulfilling week as you walk in fellowship with Him. Anointed by the Spirit of God, may you live after the Spirit, that new life of the Spirit that is yours through Christ, being born again by the Spirit to this living hope, to this inheritance that is yours through faith. God bless you and keep you in His love, in Jesus'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으로 성령을 좇아 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희망 안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통하여 유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